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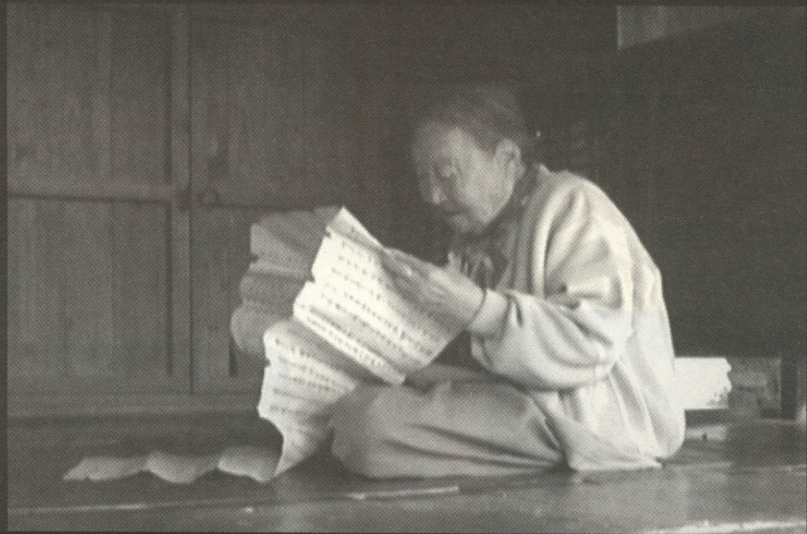
2001. 4. 15 제1호

WFFIS Daily



WFFIS Daily

1.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다
개막작 <거류>
2. "축하합니다"
4.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100배 즐기는 법
6. WFFIS News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개막
여성의 꿈, 여성의 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7. English Edition



●오늘의 영화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1회 / 11:00 <행복> <오페라 무페거리>
2회 / 1:30 <어둠의 시간>

●오늘의 이벤트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오후 / 7:00 개막식-개막작 <거류>

※ 일정은 주최측의 사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혜경
편집인 김혜승

취재명예기자단
팀장 박진수
조은미
어현숙
박영미
고혜선
김은주
이아정

사진 김경수
발행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다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개막작 <거류>

김소영 감독 / 2001 / 디지털-베타 / 칼라 / 75분 / 다큐

영화학자로,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김소영교수의 작품. 1989년 여성영화집단 바리터를 창단하고 제작한 영화 <작은 폴에도 이름있으니> 이후 10여년 만에 현장에 복귀하여 만든 다큐멘터리이다.

<거류>는 제목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삶/외국의 거류지에 삶(居留), 떠남과 머무름/죽음과 삶(去留)의 뜻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 자란 고향을 떠나 시집을 가게 되고, 역사와 사회의 변동에 따라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 여성들의 삶을 1910년에서 1977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고 있는 작품.

김감독의 할머니의 고향인 경남 고성지역에서 만난 다양한 계층의 여성-같은 섬세끼리 한 곳에 모여 살아가는 전주 최씨 집성촌 마을의 할머니, 농사를 짓거나 바닷가에서 횃집을 하는 아주머니, 지방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30대 여성 등을 인터뷰하면서 한국전쟁, 농촌 근대화 등의 과정이 여성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하였다.

또한 언론제문, 서울에서 태어나 고성으로 시집 온 화교 여성, 영국인과 결혼해 독일에 살고 있는 진해출신의 여성, 피아노나 카메라와 같이 근대적인 표현매체를 다루는 젊은 여성 등 여성들이 언어나 문장, 자신을 표현해내는 방식을 담고 있다.

<거류>는 저예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작업, 자유로운 재촬영 등이 가능한 디지털 작업으로 제작되어 기술적인 실험은 물론 여성영화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공지영 소설가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손으로, 여성의 언어로, 그리하여 마침내 여성의 마음으로!



김정현 화가·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여성과 영화와 축제가 서로 만났다. 뭔가 제대로 된 물건이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다. 축하한다.

박찬욱 영화감독

여성해방만세!



변영주 감독

여성영화제는 27가지 이유에서 그 의미가 있다. 영화를 만들고 관람하는(창작자와 수용자)가 여성의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2001년 4월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영화가 어떻게 현실 여성의 상황을 따라가고 있으며, 분노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되새길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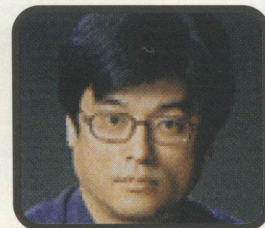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표현한 세계 각국의 여성영화들을 통해 여성 영화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폭넓은 나눔의 장을 만들어 나갈 제3회 여성영화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신선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나고자 하는 여성영화제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김효선 여자와닷컴 대표

눈부시게 성장하는 서울여성영화제는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합니다. 전 세계 여성영화인의 네트워킹을 가능케 한 서울여성영화에서 한국 여성영화인들의 미래를, 그리고 나가서는 정보화의 주역으로서 한국여성들의 미래를 감지해 봅니다. 서울여성영화제 파이팅!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장

3회째 맞는 여성영화제, 이제 보다 큰 지평을 열기 시작할 때입니다. 영상의 세기를 여성의 세기로 발전시킬 촉매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정옥 문예진흥원 원장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를 축하하며 성원을 보냅니다. 여성영화의 화려한 꿈이 어우러져 서울에 찬란한 영상의 꽃이 피어오르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박옥희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발행인

여성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과 정직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서울여성영화제에서가 있어 "If"도 힘이 납니다. 건강한 여성주의 문화를 창출하는 여성영화제! 그 이름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욱더 쉼없이 영향력 있는 영화제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심재명 영필름 대표

여성영화인이 활개치는 21세기 영화계를 꿈꾸며...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를 축하드립니다.